

보살의 길

2009년 여름호 제 38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5분만 더 늦잠을 자고 싶고 힘들고 지쳐 쉬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것이다. 나 역시 가끔 조금 더 늦잠을 자고 싶고 힘든 출근길을 할 때가 있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몇 가지 일화를 들려 주려고 한다.

다른 날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날도 출근하여 어르신들께 문안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한 어르신께서 활짝 웃으시며 '우리 선생님 왔어요? 아이고 쉬는 날 까지 우리들 돌보려고 힘들게 왔어요? 아이고 참 고생한다.' 라며 내 손을 잡으셨다. 거의 매일 보는 얼굴인데도 항상 반갑게, 고맙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딸같이, 손녀같이, 가족같이 생각하는 어르신의 전심이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작은 도움이 어르신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백승미 / 생활지도원 6년차

출근을 하자마자 한 어르신이 다급한 표정으로 나에게 오셔서 먹통이라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꺼진 핸드폰을 내미셨다. 작동법을 몰라 끄고 계셨다고 한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전원을 켜 드리자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작동법을 설명해 드리자 '초록불이 되면 충전이 다 된거야?' 라고 물으시며 좋아하신다. 우리에게는 쉬운 핸드폰 작동법이 어르신에게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다. 충전이 다 된 핸드폰을 목에 걸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나의 작은 도움이 어르신에게 행복이 될 수도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또 만나요' 라며 헤어진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도 나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나의 작은 도움이 어르신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파이팅! 할 것이다.

남은 여생 건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금천 수지침봉사단에 소속된 조청길입니다.

관내 해명 양로원에 수지침 시술 봉사 차 출입 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그 전에는 양로원 하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거거하는 곳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들여다 본 적도 얘기를 나눈 적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여기 양로원에 봉사 하면서 느낀 점은 금천 노인 복지관에 드나드는 노인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 제게 다가 왔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연령이 많고 남은여생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이었을까 외롭고 적정한 모습이 복지관 출입 노인들과는 대조 되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이곳저곳 아픈 것은 한가지 입니다마는 더 연로하시다 보니 저희 수지침 시술로도 악화 되는 것은 예방 할지언정 완치나 눈에 띄는 고통완화는 쉽게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면 때로 눈에 띄지 않는 분이 계시면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는 어르신들은 묵묵히 잘 참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롭고 적정한 어르신을 위한 아동들과의 만남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미소를 짓지 않을까요. 끝으로 범담이 있어 좋고 부처님이 가까이 계시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봉사는 손과 발로

움기는 실천

동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효정

봉사?=실천!

“효정아! 셋째 주 토요일에 시간되지? 학교 끝나고 영화 보러 가자~”

“어? 안될 것 같은데. 나 봉사활동 하러 가야 해서. 다음에 보자.”

“봉사? 네가 그런 것도 해? 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부족한 잠을 채우기에 바빴던 내게,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신나는 일이 되었다. 나중에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면 구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나에게 양로원 봉사활동은 뜻밖의 기회였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먹은 일이라도 막상 눈앞에 닥치면 힘들어서 지쳐버리는 내 성격에, 처음부터 마냥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는 횟수가 한번, 한번 늘어갈 때 마다 내 마음은 뿌듯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찻집하지 않고, 집에서조차 안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혹시 내가 청소한다고 뿌려놓은 물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미끄러지시면 어쩌나, 앞서서 배려하게 되었다.

간혹 가다 학생에겐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나도 학생에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교과서를 한번, 두 번, 열 번 읽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나서 더욱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자신이 그런 일을 하기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그리 오랫동안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2시간.

내가 조금만 자는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혹시 마음으로만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봉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손과 발로 옮기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기쁨을 전하는 일

동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희정

벚꽃의 꽃망울이 여물기 시작하는 4월, 저와 친구들은 혜명양로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봉사활동' 이라는 말을 쓴 '일손 돕기' 만 해왔던 저희들에게 선생님께서는 "참된 의미의 봉사활동을 하러가자" 라고 제안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 하시자마자 저희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라 양로원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양로원 봉사는 처음이라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실수 하면 어찌지 등 걱정이 된 저희들은 들어가기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말자' 라고 다짐을 한 후 서로 응원을 하며 씩씩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봉사' 를 마친 후에는 처음의 의욕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모두들 과감치에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괜한 걱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달, 다음 달에도 모두들 꾸준히 나와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일들이 금방 끝나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구역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려 이상하다고 느낄 때면 저희가 바닥을 닦을 때마다, 창문을 닦을 때 마다 마주치면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주시고, 쉬어가면서 하라고 과자도 주시는 어르신들 배려 덕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안일이 힘들다는 사실, 청소를 마친 후의 뿌듯함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값진 깨달음은 저희들의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남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삶 역시 '성공' 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자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혜명양로원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명동점



시설개요

- 시설 명 : 해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현재 입소인원

- ▶ 총 63명(6월 30일 기준)
- 할아버지 : 27명
- 할머니 : 36명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직원현황

- ▶ 총 16명
- 원장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2009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수입		지출	
후원금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지정 후원금	1,669,700	사무비	5,242,380
		자산취득비	277,300
비지정 후원금	9,588,130	사업비	8,900,005
		프로그램 사업비	889,500
합계	11,257,830	합계	15,309,185

자원봉사자

2009년 4월 1일 ~ 6월 31일

이승희 강은향, 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박영숙, 유미애, 류은경, 한미경, 양영진, 김경은, 최의재(밀그림색화), 문덕녀, 홍순자, 박상화(대림미용실), 이푸름, 김병호(영등포고도스야발),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외6명(치과진료), 금천보건소, 조규용, 고병득,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울림회, 김하늘(차밍댄스), 목향법사, 지영옥, 김상영, 목향, 신세양, 최미자, 이순교, 김덕문,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친불가봉사팀), 홍은석, 황숙희, 김영희, 선재심, 윤영심, 손정숙, 배현순, 장소순, 이호경, 전별문, 최정혜, 최현임, 마정임(반야회1기),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자(반야회3기), 박미란(말벗),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전초이, 안성수(우당바라), 김도연(이야기시인), 조철길, 임영희, 안현숙, 장미숙(수지침), 여은경(햇들채소), 최숙재(민요), 소미숙, 한종임, 김미정, 한희주, 고병님, 이정순(민들레모임), 오정자(아코니온연주)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았신 후원자님께서는 넓은신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인천보살님, 백련사, 해명보육원, 금천푸드뱅크, 문금자, 박재근원장님, 기업은행, 서서울생활과학고, 이재임위원, 이운분, 구충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정세균민주당대표, 대영정공, 원각스님, 정윤서, 대림미용실 문덕녀원장님, 국송우, 김정환, 색칠자원봉사팀, 민들레모임, 서울문화재단

지로후원

윤재순 90,000	문금자 20,000	구봉순 40,000	이정호 15,000	서현종스님 40,000
김동섭 300,000	구충수 200,000	백승풍 10,000	안정희 10,000	임옥수 200,000
은선사 20,000	이복자 20,000	박세진 30,000	아이에이치브레인(주) 150,000	
김승희 20,000				

현금후원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한노협 53,100	권기상 150,000	한국증권거래소 600,000
한태규 200,000	한진택 200,000	박해정 30,000	양보금 30,000	조성한 40,000
유규동 30,000	안효주 200,000	김선금 100,000	마희전 60,000	이순자 60,000
박동필 60,000	유석하 15,000	이경옥 10,000	이명희 30,000	이은희 20,000
유복진 100,000	황형순 15,000	황준순 15,000	전국공무원 550,000	
강차원 500,000	전옥화 500,000	이현자 10,000	안성순 10,000	이상윤 5,000
임숙희 1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견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활품후원 - 락스, 피죤, 욕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❶ 지로번호 : 7655940
- ❷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❸ 예금주 : 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운수 증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 5617번 증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증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 (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